

1. 다음 <보기>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 ㉠ 박[박], 뷔[박], 부엌[부억]
- ㉡ 국물[궁물], 굳이[구지], 아비[애비]
- ㉢ 젓소[전쏘], 남지[남찌]
- ㉣ 좋대[조타], 흔하+지[흔치]
- ㉤ 초+불 → 초뿔[초뿔], 비+물 → 빗물[빈물]

(1)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말소리가 바뀌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2가지를 서술하십시오.

- ① : _____
- ② : _____

(2) <보기>의 ㉠~㉤은 (1)의 ①, ② 중 어느 예에 해당하는지 표현하십시오.

- (1) - ① : _____
- (1) - ② : _____

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이질적인 것은?

지팡이를 잡고 ①한리산 백록담을 향하여 안개 속을 헤쳐 간다.
 ②한란의 꽃줄기가 하루 종일 눈앞에 맴돌아, 서울의 ③종로에서부터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뭇가지 밟는 소리에 살아 있는 무언가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린다.
 안개 속으로 호젓하게 ④산길을 걸어가갈 때 문득 나타난 햇살이 저 허공에 사선 하나 긋는다. 어느새 ⑤백록담이 다가와 내 손을 잡는다. 아해! 서귀포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지용의 호수여.

3.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 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넙꾸나].
- ② 비가 갠 후, 하늘에 맑은[말근] 구름이 지나간다.

- ③ 지붕에 눈이 가득 쌓이다[싸히다].
- ④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만머느리[맘머느리]갑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 ⑤ 어머니께서 고깃배[고기빼]를 이용하여 저녁 반찬을 준비하셨다.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알록달록, 얼룩덜룩, 풍당풍당, 풍덩풍덩

(1) <보기>와 같은 현상은 의태어와 의성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보기>와 같은 현상이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에 해당하는 예를 2가지 쓰시오.

5.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국어에서는 'ㅈ, ㅊ'과 같은 자음 뒤에서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즉, 'ㅈ, ㅊ'을 지닌 단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던 단모음으로 발음하던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예를 들면 '모기야'라는 단어를 '모기야'라고 발음했을 때와 '모기야'라고 잘못 발음했을 때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자기야'라는 단어는 '자기야'라고 발음하던 '자기야'라고 발음하던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이다.

- ① 'ㅈ, ㅊ'과 'ㅣ'가 다른 위치에서 소리를 내어서
- ② 'ㅈ, ㅊ'과 'ㅣ'가 결합한 발음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 ③ 'ㅈ, ㅊ'이 'ㅣ'를 만나면 'ㄷ'으로 변하여 발음되므로
- ④ 'ㅈ, ㅊ'이 'ㅣ'를 만나면 음운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 ⑤ 'ㅈ, ㅊ'은 자음이어서 모음 'ㅣ'와 결합하여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므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①같은 나의 모습

골칫거리’, ‘㉠수도물(→수돗물)’, ‘전세값(→전셋값)’, ‘돋히다(→돋치다)’, ‘멧일(→머칠)’과 같이 잘못 적는 이도 많다. ‘치닥거리’는 일감, 재료를 뜻하는 말 ‘거리’에 엮매여서, ‘골칫거리’, ‘수도물’, ‘전세값’은 글자에만 집착하고 사이시옷 적기에 익지 않아서, ‘돋히다’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에 엮매여, ‘멧일’은 분명하지 않은 어원에 엮매여 잘못 적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형태 중심의 표기 의식이 성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뒤틀리’, ‘뒤틀쪽’, ‘헛탕’, ‘일찌기’, ‘깍다’, ‘늦깎이’, ‘깍다’ 등은 발음 중심의 표기 현상을 보인다. ‘뒤틀리’, ‘뒤틀쪽’은 뒤틀소리가 ‘ㅈ, ㅊ’(거센소리, 된소리)으로 된 까닭에 ‘뒤틀리’, ‘뒤틀쪽’으로 써야 한다. ‘일찌기’는 ‘일찍’이라는 말이 살아 쓰이므로 ‘일찍이’가 맞고, ‘깍다’는 원래 쌍받침 ‘ㄱ’을 썼으므로 ‘늦깎이’, ‘깍다’로 써야 맞다. ‘깍듯이’, ‘깍두기’, ‘깍쟁이’는 원래가 ㄱ받침이다. 이 정도의 표기 오류는 맞춤법이 어려워서라기보다 학교에서 맞춤법 익히기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있음과 없음’을 ‘있슴’과 ‘없슴’으로 잘못 표기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발음 중심의 표기 현상
- ② 맞춤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현상
- ③ 형태 중심의 표기 의식이 강하여 생긴 현상
- ④ 어원에 집착하여 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
- ⑤ 분명하지 않은 어원에 엮매여 잘못 적고 있는 것

11. ㉠과 동일한 오류가 나타난 단어는?

- ① 외과 ② 물가
- ③ 초점 ④ 대패밥
- ⑤ 기와집

12. 각 음운의 변동에 대한 용례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음동화 : 칼날 → [칼랄]
- ② 사잇소리 현상 : 비 + 물 → [빈물]
- ③ 음운의 축약 : 피붙이 → [피부치]
- ④ 된소리되기 : 잡- + -고 → [잡꼬]
-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 : 히읃 → [히읃]

13. <보기>에서 밑줄 그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표준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소리의 체계를 알아야 하고, 그 체계 안에서 말소리들이 이어질 때 어떤 소리로 실현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개 이상의 말소리가 이어지면 필연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변동 현상은 연속되는 두 소리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만들어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비슷한 말소리가 이어질 때 이 중 하나를 다른 말소리로 바꿔 의사 전달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의 변동이 모두 표준어의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소리의 변동 중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만을 규범화한 것이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이다.

- ① 냄비 ② 멧쟁이 ③ 서울내기
- ④ 이지랑이 ⑤ (불을) 땡기다

14. 밑줄 친 단어 중,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가 내 손에 잡혔다.
- ② 오늘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 ③ 날짜에 맞춰 짐을 싸야겠다.
- ④ 그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 ⑤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

15. <보기>에서 동화현상(비음화/설측음화)과 동화방향(순행/역행/상호)이 서로 같은 것을 찾아 연결한 것은?

<보기>

지팡이를 짚고 **한라산 백록담**을 향하여 안개 속을 헤쳐 간다. **한란**의 꽃줄기가 하루 종일 눈앞에 맴돌아, 서울의 **종로**에서부터 뚝뚝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뭇가지 **맑는** 소리에 살아 있는 무언가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린다. 안개 속으로 호젓하게 산길을 걸어갈 때 문득 나타난 햇살이 저 허공에 사선 하나 **긋는다**. 어느새 백록담이 다가와 내 손을 **잡는다**. 아! 서귀포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지용의 호수여.

- ① 한라산 - 긋는다 ② 백록담 - 종로
- ③ 한란 - 백록담 ④ 종로 - 맑는
- ⑤ 맑는 - 잡는다

16. <보기>의 모음을 분류한 공통 기준을 모두 골라 바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르게 묶은 것은?

<보기>
I, H, H

<기준>
㉠ 혀의 앞뒤
㉡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에서 표기가 틀린 단어를 찾고, 이를 바르게 고치시오.

<보기>
책점, 횡수, 예사일, 셋방, 등곶길, 고양이과, 마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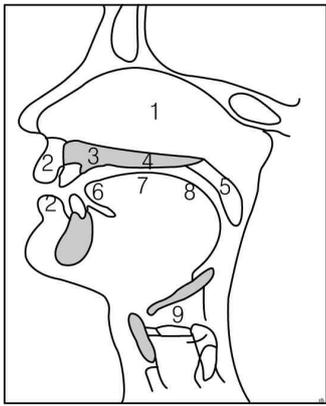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소리가 바뀌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 한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려는 경제성의 원리와 표현 강화를 위한 표현 효과의 원리에 의한 것이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국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국어 말소리의 체계를 알고, 이러한 말소리들이 실제 발음될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운 변동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① 좋다 → [조타]
- ② 속이다 → [쇠기다]
- ③ 잡- + -고 → [잡꼬]
- ④ 술 + 나무 → [소나무]
- ⑤ 만며느리 → [만며느리]

19. <보기>의 그림에서 3과 6이 작용하여 소리가 나는 자음이 포함되지 않은 단어는?

<보기>



- ① 다리 ② 풍차 ③ 산나물
- ④ 장난감 ⑤ 호랑이

20. ‘음운’의 개념을 <보기>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 ‘음운은 ~이다’의 형태로 서술할 것.
▶ 30자 이내로 서술할 것

21.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거나 ‘ㄴ’ 또는 ‘ㄴㄴ’이 첨가되어 소리가 나는 현상

- ① 잡고 ② 젓소 ③ 국밥 ④ 훗일 ⑤ 옆집

22.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운의 변동은 경제성의 원리와 표현효과의 원리에 의해 일어난다.
- ②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음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음운의 변동에는 된소리되기와 사잇소리 현상이 있다.
- ④ ‘표준 발음법’은 소리의 변동 중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들을 규범화한 것이다.
- ⑤ 정부는 공적인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표준발음법’을 제정하였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23. <보기>는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분류 기준을 쓰시오.

〈보기〉				
㉠ ㉡ ㉢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ㅐ	ㅑ	ㅕ	ㅗ
저모음	ㅐ		ㅓ	

㉠: _____ ㉡: _____ ㉢: _____

24. 모음을 <보기>와 같이 분류했을 때, 그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 ㄱ, ㅓ, ㅑ, ㅗ	
▷ ㅣ, ㅡ, ㅐ, ㅕ, ㅓ, ㅐ	

- ① 입술 모양 ② 혀의 높이 ③ 혀의 앞뒤
④ 조음 방법 ⑤ 조음 위치

25.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1), ㉡의 조음 방법을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2)

〈보기〉					
조음위치 조음방법		두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혓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울림 소리	㉠	ㅍ	ㄴ		ㅇ
	유음		ㄹ		

(1): _____

(2): _____

26.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을 모두 쓰시오.

27. <보기>의 ㉠~㉣ 중 음운의 변동이 이질적인 것은?

〈보기〉

시험을 앞두고 교실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은 꺼질 줄을 몰랐다. 친구들은 밤을 ㉡**하얗게** 지새울 듯이 시험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였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때맞춰** 들어오셔서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다. 달을 보며 내일 국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의기양양해 하는 내 모습을 ㉤**그려**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정답] (1) ① 발음을 쉽게 하려는 경계성의 원리에 의한 것, ② 표현 강화를 위한 표현 효과의 원리에 의한 것 (2) ① : ㉠, ㉡, ㉢ / ② : ㉣, ㉤
- [해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는 경계성의 원리와 표현 강화를 위한 표현 효과의 원리가 있다. 경계성의 원리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음운의 동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이 있고, 표현 강화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 등이 있다. (1)에서 ①, ②를 바꿔 썼다면 (2)에서도 순서가 달라져야 정답이 된다.
- 2) [정답] ④
- [해설] ④는 단어가 합쳐져 합성어가 될 때,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사잇소리이다. 나머지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자음동화 현상이다.
- 3) [정답] ②
- [해설] ① [날꾸나] 겹받침 '래'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르'로 발음한다. ③ [싸이다] '쌍'이 '-이-'를 만나면 'ㅎ'이 탈락한다. ④ '만'의 받침 'ㄷ'이 '며느리'의 앞자음 'ㄹ'을 만나 'ㄴ'으로 변해 [만며느리]로 발음한다. ⑤ 된소리 없이 [고기배]로 발음해야 생선의 배라는 의미가 된다. [고기빼]는 '생선을 잡는 배'라는 의미이다.
- 4) [정답] (1) 모음조화, (2) 강충강충, 오순도순, 오뚝이 등에서 2가지
- [해설] 국어의 모음은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모음조화'는 'ㅏ, ㅑ' 등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등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5) [정답] ②
- [해설] 'ㅈ, ㅊ'과 'ㅣ'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가까우므로 'ㅣ'를 살려서 발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의미를 구분하기 힘들다.
- 6) [정답] ④
- [해설] ④는 둘 다 음운의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쓰+어'에서 '-으-'가 탈락하여 "써"가 되었다. '소나무'는 '솔+나무'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 7) [정답] ㉥는 음절끝소리 현상으로 '잇고→인고'로 변환 후, 된소리되기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 '인고→인꼬'로 발음된다.
- [해설] 국어는 종성에서 발음날 수 있는 음운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이다. 따라서 종성 'ㅈ→ㄷ'으로 변하는 음절끝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두 개의 안올림 예사소리가 만나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 8) [정답] (1)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에 따라 (2) 소리 내

는 방법과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해설] 모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모음, 평순 모음으로 나뉜다.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등으로 나뉜다.

- 9) [정답] ②, ③
- [해설] 소리의 덩어리인 9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또한 위 문장은 된소리되기와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표현 강화를 위한 음운 변동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 10) [정답] ①
- [해설] '있음'과 '없음'에서의 받침 'ㅍ'과 'ㅅ'이 뒤 음절에 영향을 끼쳐서 발음되는 현상을 그대로 표기에 적용하여 생긴 오류이다.
- 11) [정답] ④
- [해설] ①, ②, ③은 한자어끼리의 합성어로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⑤는 사잇소리의 예외현상이다. 하지만 '대패밥→대팻밥'으로 적어야 알맞다.
- 12) [정답] ③
- [해설] 피붙이 → [피부치] 는 구개음화에 대한 옹레다. 구개음화는 음운의 동화에 속한다.
- 13) [정답] ④
- [해설] 앞 음절의 후설 모음 'ㅏ, ㅑ, ㅓ, ㅕ'는 뒤 음절에 전설 모음 'ㅣ'가 오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 전설 모음 'ㅐ, ㅒ, ㅖ, ㅘ'로 바뀌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모음 동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화된 말들은 대부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두 원형대로 쓰고 읽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냄비, 멧쟁이, 서울내기, (불을) 땀기다'처럼 굳어진 말들은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 14) [정답] ④
- [해설] ① 잡하+엇+다→잡혔다(음운축약), ② 오+아서→와서(음운축약), ③ 맞추+어→맞춰(음운축약), ④ 흔하+지→흔치(음운탈락), ⑤ 드리+엇+다→드렸다(음운축약)
- 15) [정답] ⑤
- [해설] 한라산(설측음화/역행), 백록담(비음화/상호), 한라산(설측음화/역행), 종로(비음화/순행), 밭(비음화/역행), 굶다(비음화/역행), 잡는다(비음화/역행). ⑤의 '밧는-잡는다'는 비음화와 역행으로 동화현상과 동화방향이 같다.
- 16) [정답] ③
- [해설] 'ㅣ, ㅐ, ㅒ'는 전설모음(혀의 앞뒤), 평순모음(입술의 모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 ㉡이 이들을 분류한 공통 기준이 된다.
- 17) [정답] 찻점→채점, 예사일→예삿일, 고양이과→고양잇과
- [해설]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핥수'처럼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단어도 있다.
- 18) [정답] ③

[해설]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이 있다. ① 음운축약, ② 모음동화, ③ 된소리되기, ④ 음운탈락, ⑤ 자음동화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19) [정답] ②

[해설] 3은 윗잇몸, 6은 혀끝으로 이 둘이 작용하여 내는 소리는 ‘ㄷ, ㅌ, ㅊ, ㅅ, ㅆ, ㄴ, ㄹ’이므로 이 자음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②의 ‘퐁차’가 정답이다.

20) [정답] 음운은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기능을 가진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21) [정답] ④

[해설] ④만 사잇소리 현상이고, 나머지는 된소리되기다. ‘훗일’의 경우 [훈닐]로 발음되어 ‘ㄴ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이다.

22) [정답] ③

[해설]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음운의 변동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의 동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 등이 있다.

23) [정답] ㉞: 혀의 앞뒤(전후), ㉟: 입술의 모양, ㊱: 혀의 높이(고저)

[해설]<보기>는 단모음 체계표이다. 단모음 체계표는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

24) [정답] ①

[해설]<보기>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눈 것이다.

25) [정답] (1): 비음, (2): 비음은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26) [정답]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해설]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27) [정답] ④

[해설]④의 ‘떠’는 ‘뜨- + -어 → 떠’로, 음운 탈락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말이다. ‘밝힌[발킨]’, ‘하얏게[하야게]’는 자음 축약의 예이고, ‘때맞추- + -어 → 때맞춰’, ‘그리- + -어 → 그려’는 모음 축약의 예이다.